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은 안전을 욕망하는가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의 윤리적·철학적 원칙 제안을 위한 연구(1)』 후기

최진일 회원, 당장멈춰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지에게 보고서를 선물하자 웃으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럴 만도 하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철학적, 윤리적 원칙이라니. 잘해야 선비, 아니면 꼰대가 따로 없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연구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많은 사람이 이 연구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 그 자체로 연구 주제이자 대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진의 어려움은 철학이니 윤리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난관은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다.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술들이 거기에 포함되는가? 보통의 경우라면 각각의 기술들을 정의와 성격, 용도와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적용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정의도, 종합적인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스마트라는 이름의 기술과 기기가 넘쳐나고, 많은 정책과 예산이 스마트 안전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고민 끝에 ‘확인 가능한’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해당 기술의 표면적 목적, 실제 용도와 기능, 산재예방 효과, 부작용, 현장의 반응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평가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 견지해야 할 윤리적, 철학적 원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 기술의 종착점은?

정의와 분류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미성숙, 심하게 말하자면 수준미달인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추락, 근접, 가스 등등 수많은 센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장비들이 별도의 인증기준 없이 기존의 전자/전파 관련 인증만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도 아직 영상인식 정도에만 집중되어 있어 알고리즘편향 등의 부작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기술 자체는 미성숙한 단계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CCTV를 통한 ‘기록’에 머물렀다면, 이를 실시간 ‘관제’로 나아가 사업장과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각종 센서와 관제장비, 휴대용 장비들은 IoT기반기술과 광범위한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고 있다. 안전보건기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성관리, 노동자감시통제와 아주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이 기술들의 최종목적지는 안전한 현장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이 극대화된 현장에 가깝다.

기술개발 기업들, 사용하는 기업들, 이를 지원하는 행정, 나아가 학계까지 모두가 열광하는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다.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수해야 할 철학적, 윤리적 원칙을 세우자는 결론은 왜 그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 기술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수준인지, 기술과 시장의 욕망이 어떻게 서로를 부추기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성숙의 핵심은 현재의 기술이 대부분 개인보호구(플랫폼), 혹은 개별 통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도 결국은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시대적 안전관리에 머물러 있는 사업주들의 구미에 딱 맞는 방식이며, 공학적으로 인간의 실수를 보완하고 나아가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위험의 원천을 제거하는 높은 수준의 대안과는 동떨어진 방식이다.

안전보건기술이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

보고서는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미성숙을 넘어 공학적 대책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욕망 속에 허우적대는 기술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중심성, 비례성, 작업장 민주주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이 그것이다.

지난 8월, 공교롭게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용역과제가 입찰공고 되었다. 그러나 제목부터 우리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마트 안전보건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안 그래도 과속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을 때가 아니다. 잠시 질주를 멈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